

대학평의원회

-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원회(2025.05.14.)
- 2. 회의일시 : 2025-05-14 수 13:30 ~ 15:00
-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8명	김보나, 이갑래, 구자경, 송호준, 정태진, 오세준, 신유성, 조종건
불참인원	4명	정인호, 김훈, 백운, 김효경

5. 회의안건


가. 교무위원 직무평가 관련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_20250514.pdf 별첨

7. 의 견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5.05.14

위원	이갑래	2025/05/23 확인
위원	구자경	2025/05/16 확인
위원	송호준	2025/05/23 확인
위원	정태진	2025/05/19 확인
위원	오세준	2025/05/23 확인
위원	신유성	2025/05/30 확인
위원	조종건	2025/05/19 확인
위원	김덕수	2025/5/30 
간사	김보나	2025/05/20 확인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5. 05. 07.(수)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2명

1. 회의일시 : 2025. 05. 14.(수) 13:3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8명)	(의장) 이갑래 (부의장) (교원) 구자경, 송호준, 오세준, 정태진 (직원) 김덕수 (위촉) 조종건 (조교) (학생) 신유성	간사: 김보나
불참인원 (4명)	정인호, 백운, 김효경, 김훈	

4. 안건

가. 교무위원 직무평가 관련

5. 회의내용

김보나 간사(이하 "간사")가 대학평의원회 재적인원 12명 중 8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이갑래 대학평의원회 의장(이하 "의장")이 회의를 개회하다.

가. 교무위원 직무평가 관련

의장이 간사에게 지난 회의 진행경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간사가 지난 회의에서 교무위원 직무평가와 관련 총장 설문에 대한 대학본부의 이의제기가 있어, 의장이 대표로 대학본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추가적으로 의장이 대학본부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총장님과 미팅을 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현재의 총장 설문은 직무평가로 보기 어렵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대학평의원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 결산, 학생충원을 등에 대한 자문, 교무위원의 직무상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설문을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하여도 지난 기획경영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동의되며, 행정부서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총장 직무에 관한 설문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총장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학생들에 대하여는 총장 직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정태진 의원이 설문 수행 방법과 관련하여는 대학평의원회 의원이 각 그룹별 대표이므로 직접 설문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조종건 의원이 지난 회의에서 기획경영본부장의 이의제기와 새로 의장이 선출된 이후에 총장님을 만났고 이에 대해 총장이 평가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적용은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용인될 수 있으므로 설문평가가 직무평가에 적절한 성격인지 검토하여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송호준 의원이 평가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설명하며, 현재 설문 질문에 대한 사전지식의 차이가 있어 평가의 타당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재의 설문이 직무평가 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정태진 의원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먼저 질문의 타당성에 대해 현재의 설문은 연세대학교 모델을 참고하였는데 직무에 대해 세세하게 평가하는 항목의 설문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평가 문항 작성자의 전문성, 문항의 적절성, 객관성 등의 논란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참고할 수 있는 대형 규모의 대학(연세대)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는 문항을 선정한 것이고 두 번째로 방법과 설문 범위에 대하여, 교직원의 경우, 단체 이메일로 해소 가능하나 학생의 경우,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신유성 의원이 설문조사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하자, 송호준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만족도조사와 평가가 구분되는데 현재의 설문은 총장 직무에 관한 평가문항으로 학생들이 총장의 직무에 대한 사전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임을 답변하다.

이에 신유성 의원이 일반학생들이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덕수 의원이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하지만 100% 만족하는 평가가 없음을 설명하며, 평가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설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의장이 지난 대학평의원회에서 2024학년도 교무위원 직무평가 중 총장 설문을 직무평가의 보충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나, 이후 설문 진행과정에서 기획경영본부의 설문 방법과 설문 내용이 직무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설문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2024학년도 교무위원 직무평가의 총장 설문 진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구자경 의원이 학생 설문에 대한 방법적인 어려움, 대학 본부의 이의제기, 새로운 의장 선출에 따라 의장이 총장 설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행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현재의 설문이 우리 대학평의원회의 의도와 달리 현재 시기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오세준 의원이 이전 평가에 대한 어떤 점의 보완으로 현재 설문이 진행되었는지 질의하자, 조종건 의원이 이전 평가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교무위원 직무평가 위원회에서 설문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어 정태진 의원이 보충하여 자체평가서 만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설문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의되어 진행된 것을 뒤집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조종건 의원이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흘렀으니, 자체적으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총장 및 교무위원들과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다.

송호준 의원이 대학평의원회에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설문보다는 대학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취지에 맞는 역할이라고 판단되고 질적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설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덕수 의원이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 평가 대상자의 입장에서 평가내용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바가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이의제기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정태진 의원이 의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이후 총장 설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총장 설문 수행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다고 이해되나, 현재의 설문에 대한 의견이 담긴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자고 제안하다.

구자경 의원이 제출된 교무위원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평의원회 내에서 각 단위별 대표로 뽑인 위원들이 각 단위별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총장 설문에 대해 총장이나 본부의 반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규정,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중단하려는 것이므로 본부의 공문을 받아서 중단의 이유로 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정태진 의원이 현재까지 논의된 총장 설문에 대해 공백을 갖는 것 보다는 대학 본부의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남겨 향후 활용하자는 의견임을 설명하다. 이에 김덕수 의원이 동의하며, 공식적으로 대학본부의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조종건 의원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김덕수 의원이 평가의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근거로 2024학년도의 평가에서 설문을 제외하도록 하고 2025학년도에 설문을 보완하여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구자경 의원이 2025학년도의 경우에도 설문의 근거를 규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각 위원별 의견을 정리하여, 2024학년도 교무위원 직무평가에 대해 총장 설문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른 시일 안에 평가보고서를 완성하고, 2025학년도의 교무위원 직무평가에 대해 6월까지 평가 설문 안과 제도를 확정하여 그 제도를 활용, 내년 1월까지 평가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의견에 모든 의원이 동의하다.

추가적으로 오세준 의원이 KPI(핵심성과지표)를 각 부서별로 적합하게 설정하여 직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구자경 의원이 동의하며 이전 교무위원 직무평가를 참조하여 각 교무위원별 KPI(핵심성과지표)를 설정, 검토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다.

6. 폐회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의장의 건의와 전체 의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5시에 폐회하다.

2025년 05월 14일



< 2025.05.14. 대학평의원회, 본관 3층 회의실 >